

<제10강>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파]	맑다[막따]
늪지[늑찌]	삼[삼:]	젊다[점:따]
옳고[읍꼬]	옳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께]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	--------	----------

< 해 설 >

1. 겹받침 중 탈락하는 자음은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준어에서 ‘ㄹ, ㄹ, ㄹ’은 ‘ㄹ’이 탈락한다. 그러나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오는 어간말 자음 ‘ㄹ’은 ‘ㄹ’로 발음하고, ‘ㄹ’은 ‘ㄹ’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맑-’의 받침 ‘ㄹ’은 ‘ㅂ’으로 발음한다. 맑고 [밥:꼬], 맑지[밥:찌], 맑는데[밤:는데].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도 동일하다.

2.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 ㄱ, ㄴ → ㄴ, ㄴㅎ → ㄴ, ㄹ → ㄱ(/ㄹ), ㄹ → ㅁ, ㄹ → ㄹ(/ㅂ), {ㄹ, ㄹ, ㄹ, ㄹㅎ} → ㄹ, ㅂ → ㅂ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농고[노코]	종던[조:턴]	쌍지[싸치]
맑고[만:코]	얹던[안턴]	달지[달치]

[붙임 1] 받침 ‘ㄱ(ㄹ), ㄷ, ㅂ(ㄹ), ㅈ(ㄴ)’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ㅊ, ㅌ]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텅]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얹히다[안치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ㅌ, ㅊ, ㅌ, ㅌ’의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옷 한 벌[오탄벌]
술하다[수타다]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2. ‘ㅎ(ㄴㅎ,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달소 [다쏘]

많소 [만:쏘]

싫소 [실쏘]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짙네[싼네]

[붙임] ‘ㄴㅎ, ㄹㅎ’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안네[안네]

안는[안는]

똥네[똥네→똥레]

똥는[똥는→똥른]

4.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놓아[노아]

짙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안은[아는]

달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옴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써]

< 해 설 >

<연음 규칙 - 음절형성>

음절구조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절구조는 ‘CV’구조이다. 따라서 음절이 형성될 때도 자음은 뒤에 있는 모음과 먼저 연결된다. 즉, ‘CVCVC’는 ‘C-V, C-V’가 먼저 연결되고 좌초된 ‘C’는 앞의 모음과 연결되어 ‘C-V, C-V-C’가 된다. 따라서, ‘VCV’, ‘VCCV’의 연쇄는 각각 ‘V-CV’, ‘VC-CV’로 음절이 구성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다]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 해 설 >

1. 순수 음운론적 규칙이 아니라 형태·어휘론적 규칙이다. 음운론적으로는 모음 앞의 자음은 모음과 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 앞에서 음절끝소리규칙이 적용된다.
2. ‘맛있다’와 ‘멋있다’는 ‘있다’가 실질형태소이므로 음절끝소리규칙을 적용하여 각각 [마덜따]와 [머덜따]로 발음해야 하나 연음하여 발음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발음으로 인정한다.
3.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 앞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예들이다. 다만, ‘-어치’는 사전에서 접미사로 다뤄지고 있으나 언중들은 ‘-어치’를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고 있다.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 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귄이[디그시]	디귄을[디그슬]	디귄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지웃에[지으세]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치웃에[치으세]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키웁에[키으게]
티웁이[티으시]	티웁을[티으슬]	티웁에[티으세]
피웁이[피으비]	피웁을[피으블]	피웁에[피으베]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히웁에[히으세]

< 해 설 >

한글 자모의 이름은 해당 자모가 초성과 종성에 다 쓰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마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그 발음도 차용어(외래어)의 발음과 같다.

제5장 소리의 동화

제17항 받침 ‘ㄷ, ㅌ(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듣다[고지듣따]	곧이[구지]	미달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	----------	----------

< 해 설 >

<구개음화>

1. 개념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ㅣ’나 ‘y’(이-반모음)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ㅈ, ㅊ’이 되는 현상. ‘ㅣ’나 ‘y’의 조음위치는 경구개 부근이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非硬口蓋音이 ‘ㅣ’나 ‘y’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 규칙 : [ㄷ, ㅌ] → [ㅈ, ㅊ] / ___+{이, y}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달혀[다쳐] 붙이다[부치다]

- ㉗ ㄷ-구개음화(위의 예) - 표준발음으로 인정
- ㉘ ㄱ-구개음화. 예) 기름>지름, 곁>절, 김치>짐치
- ㉙ ㅎ-구개음화. 예) 힘>심, 형님>성님, 흥하다>송하다.

3. ‘ㄷ’ 구개음화에 의한 발음은 표준발음으로 인정하되, 표기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역사적 구개음화

1) 턴 > 천 > 천, 디 > 지, 터 > 처> 처, 턴디 > 천지 > 천지

이들은 비록 형태소 결합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한 형태소 안이지만,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구개음화를 겪었기 때문에 구개음화로 인정할 수 있는 예이다. 근대국어에서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참고 :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에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 형태소 내에서도나 합성어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발#이랑 [반니랑]/[*바치랑], 훔#이불 [훈니불]/[*호치불] (합성어);

잔디(<잔딤) [*잔지], 느티나무(<느딤나무) [*느치나무] (한 형태소 안)

2) ‘마디, 견디다’는 역사적으로 ‘마딤, 견딤다’에서 변하였다. 이런 사실로부터 ‘마디, 견디다’에 ‘ㄷ-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모든 음운 현상은 역사적으로 ‘생성-성장-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구개음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구개음화가 생겨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마디, 견디다’ 등이 ‘마딤, 견딤다’이었다. 이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려고 해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 후 ‘마딤, 견딤다’가 ‘마디, 견디다’로 바뀌어 구개음화의 적용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는 구개음화 규칙이 소멸됨으로써 이런 환경에서의 구개음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부연 : 구개음화는 17~8세기 교체기에 일어남. 구개음화의 결과 ‘디 님 더 도 듀’, ‘티 타 터 토틸’ 등의 결합이 국어에서 자취를 감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에 의해, ‘딤, 락’ 등이 ‘디, 티’로 변하게 되어 다시 이들 결합이 나타나게 됨. 무딤다>무디다, 견딤다>견디다)

5. 구개음화 규칙의 변화

1단계 구개음화 : ㅈ[ts] → ㅉ[ʧ]

2단계 구개음화 : ㄷ → ㅌ / - { | / 이 }

3단계 구개음화 : ㄷ → ㅌ / - + { | / 이 } ‘+’는 형태소 경계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ㄹ, ㄺ, ㄻ, ㄼ, ㄽ, ㄾ, ㄿ)’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깡는]
키웁만[키응만]	뭉뭉이[몽목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는]
웃맵시[온맵시]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쫘는]	꽃망울[꼰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는]
웁는[음는]	없는[엄:는]	값매대[감매대]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년는다]	합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명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 해 설 >

<비음화(鼻音化)>

1. 비음화에는 비음동화와 비음화가 있다.

1) 비음동화 : 평파열음이 비음과 만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표준 발음법 제18항 : 평파열음 ‘ㅂ, ㄸ, ㄱ’이 비음(ㄹ, ㄴ) 앞에서 각각 ‘ㄹ, ㄴ, ㅇ’으로 바뀌는 현상.

○ [ㅂ, ㄸ, ㄱ] → [ㄹ, ㄴ, ㅇ] / _{ㄹ, ㄴ}

2) 비음화 : ‘ㄹ’이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한자어에서 적용됨)

- 표준 발음법 제19항 : 비음 ‘ㄹ, ㅇ’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바뀐다.

(ㄹ → ㄴ / {ㄹ, ㅇ}_)

- 표준 발음법 제19항 [붙임] : 유음 ‘ㄹ’이 ‘ㅂ, ㄸ, ㄱ’과 만나면 ‘ㄹ’이 ‘ㄴ’으로 바뀐다. 이 때는 바뀐 ‘ㄴ’에 의해 앞의 ‘ㅂ, ㄸ, ㄱ’이 비음동화된다.
- 한자어 단어에서 ‘ㄴ,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제19항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녁]	침력[침:녁]	강릉[강:능]
항로[항:노]	대통령[대: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녁]
------------	------------	------------

십리[십니→십니]

< 해 설 >

1. 비음동화와 비음화의 차이

- 비음동화 : 역행동화, 순수음운론적 규칙, 예외 없음.
- 비음화 : 순행적이고 동화 현상이라 하기 어려움.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형태 • 어휘론적인 현상임.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 | | | |
|-----|-----------|-----------|----------|
| (1) | 난로[날:로] | 신라[실라] | 천리[철리] |
| | 광한루[광:할루] | 대관령[대:괘령] | |
| (2) | 칼날[갈날] | 물난리[물랄리] | 줄넘기[줄럼끼] |
| | 할는지[할른지] | | |

[붙임] 첫소리 ‘ㄴ’이 ‘ㄹ’, ‘ㄹ’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레]
--------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딤녁]	공권력[공뀨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븨료]	구근류[구근뉴]	

<유음화>

1. 주로 한자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ㄹ’과 결합하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 규칙 : ㄴ → ㄹ %ㄹ (유음 ‘ㄹ’ 앞뒤에서 ‘ㄴ’은 ‘ㄹ’로 바뀐다.)

2.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의 차이

순행적 유음화는 음소배열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한 현상이며, 단어 경계에서도 적용되고(부러질 나무 → 부러질라무), 비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칼날→*칸날, 줄넘기→*준넘기). 반면, 역행적 유음화는 음절배열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한 현상이고, 단어 내부에서만 적용되며(끓은 라면 → *끓을 라면), 비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청산리→청산니, 음운론→음운논). (이진호,2009 :122-124)

3. 첫소리 ‘ㄴ’이 ‘ㄹ’, ‘ㄹ’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1) 닳는 → 닳른 → [달른] 2) *달는 → 달는 → 달른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ㄹ’탈락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1)과 같은 규칙의 적용 순서가 더 합리적

4. ㄹ+ㄴ의 연쇄의 예외 : 유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탈락한다.

1) ‘ㄹ’을 가진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ㄹ’은 탈락한다.

예) 알+는[아는], 몰+는[모는], 갈+는[가는] 몰+는[무는]

2) ‘바늘+질→바느질, 딸+님→따님, 솔+나무→소나무’ 등은 파생과 합성과정에서 탈락이 일어난 화석형으로 처리.

3) 현대국어에서는 버들+나무→[버드나무]/[버들라무] 솔+나무→[소나무]/[솔라무]은 둘 다 발음 가능함. 또한 현대에 생성된 단어인 경우는 오히려 유음화가 일반적임.

예) ‘별+님→[별님] 달+님→[달님], 글+나라→[글라라], 달+나라→[달라라]’

5. 설측음화는 음운의 변동이 아니라 변이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예) 다르다 → 다르+아 → 달라